

사회적 기업의 지역 내 확산 요인 분석

최 유 진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사회적 기업의 확산 요인을 실증적 분석을 활용하여 밝히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시장의 힘을 이용하여 사회적 혹은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 조직을 의미하며 시장을 활용해 지역 사회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는 형태의 기업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국가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의 지역 내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선행 연구자들은 이질성 이론(Heterogeneity Theory), 상호 의존 이론(Interdependence Theory), 공급 측면 이론(Supply-side Theory), 복지 국가 이론(Welfare State Theory)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지역 내 확산을 설명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련 연구가 적은 상황이며 특히 실증적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해당 이론이 국내에도 적용되는지를 공간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상호 의존 이론과 공급 측면 이론은 강한 지지를 받는 이론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질성 이론과 복지 국가 이론 역시 사회적 기업의 지역 내 확산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제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공간회귀모형, 이질성 이론, 확산 이론

I. 서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를 수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김경희, 2013; 류만희, 2012; 김영철, 2011; Zhao, 2013).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국가 법률로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법률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주체로 정부는 5년마다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광역시장과 도시자 역시 '사회적 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를 채택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경영지원과 조세감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포함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2007년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증가하는 사회서비스의 수요 충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의 장애 요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확대하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Diochon & Anderson, 2011; Thompson & Doherty, 2006). 특히 사회적 기업은 낙후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지 못하

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재정 건전성이 매우 열악하여 직접적인 재정 지출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다양한 간접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외환위기 사태를 거치면서 스스로 자립하여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해보려는 시도가 지역 단위에서 자생하게 되었다(Lee, 2015; McCabe & Hahn, 2006). 재정지출만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자생적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한 사회적 경제 부문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어렵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새롭게 창업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교육, 지역 분석 지원, 정보제공 등의 컨설턴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의 확산 동기에 관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해외 학계의 경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단체의 형성과 규모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 특히 이질성 이론(Heterogeneity Theory), 상호 의존 이론(Interdependence Theory), 공급 측면 이론(Supply-side Theory), 복지 국가 이론(Welfare State Theory) 등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확산 요인으로 제시한 이론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매우 활발하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확산 동기에 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실증적 분석은 더욱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사회적 기업의 확산 요인을 공간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질성 이론, 상호 의존 이론, 공급 측면 이론, 복지 국가 이론 등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이론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독립변수를 추출한 후, 공간회귀모형에서 검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현황

1) 사회적 기업의 특징과 영역

사회적 기업이란 시장의 힘을 이용하여 사회적 혹은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Massetti, 2012). 사회적 기업의 특징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사회적 기업이란 첫째, 조직 형성의 원인이 사회적 목적(social purpose)의 실현이며 둘째, 인적 자원(human capital)을 포함한 기업의 자산과 부(wealth)는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만, 생산품(products)의 거래는 시장을 활용하고 셋째, 이익의 잉여 역시 주주(shareholders)에게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특징이며 넷째,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은 매우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조정복·류정란, 2014; 진희선, 2013; 오현석 외, 2012; 이형재·류선호, 2012; Young & Lecy, 2014; Diochon & Anderson, 2011; Larner & Mason, 2011; Zhang &

Miao, 2011; Low, 2006; Trexler, 2008; Thompson & Doherty, 2006). 이 외에도 Thompson & Doherty(2006)는 사회적 기업은 회계와 관리 측면에서 투명한 관리와 외부 통제에 의한 규제를 강조하는 기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특징은 제품의 판매를 위해 시장을 활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전통적 기업과 매우 대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기업을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먼저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에 비추어보면,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의 주요 영역과 관련하여 Rodríguez & Guzmán(2013)은 사회적 기업을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장 조직(market organization)'과 '비시장 조직(non-market organization)'이 그것이다. Rodríguez & Guzmán이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구분한 것은 그들의 시각이 조직의 이윤추구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조직'은 생산 활동을 통해 생산한 재화를 시장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전통적 기업의 재화와 경쟁시킨다.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이러한 이윤은 다시 조직 구성원에게 분배되거나 전통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를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비시장 조직'은 재화를 만들어 전통적 기업의 재화와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한다(Rodríguez & Guzmán, 2013). 당연히 '시장 조직'의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 이런 관점에서 Rodríguez & Guzmán은 사회적 기업이 시장 조직일 경우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진흥원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사회적 기업의 영역을 개념화하고 있다. 기업의 유형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좌측으로 갈수록 조직의 목적이 사회적 가치의 창출인데 반하여 우측으로 갈수록 경제적 창출이 조직의 목적이 된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영역 분류에 따르면, 가장 좌측의 '전통적 비영리 기구'와 우측의 '전통적 기업'을 제외한 가운데의 세 영역, 즉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 '사회적 책임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사회적 기업의 영역이 된다.

〈그림 1〉 사회적 기업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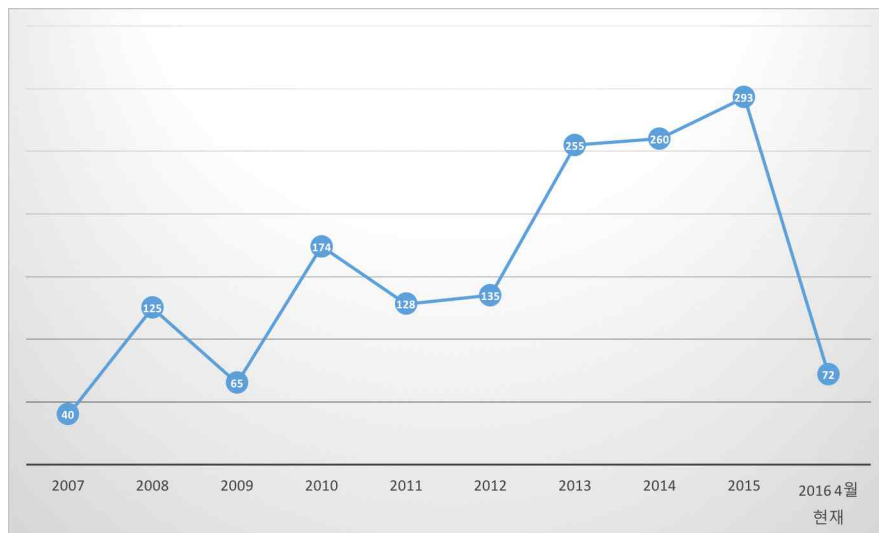


출처: 사회적기업진흥원

2)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

다음의 〈그림 2〉는 인증을 받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 최초로 40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은 이후 인증 기업의 수가 감소한 적도 있지만 대체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고 2015년에는 293개의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2016년에도 4월까지 72개의 기업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아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약 300개의 새로운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인증 사회적 기업의 추이



데이터 출처: 사회적 기업 진흥원

1) 2007년부터 지금까지 법률 일부가 수정되어왔지만, 인증에 관한 부분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당시 법률은 “사회적 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질적 인증의 최종 책임자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에 관한 규정은 변하지 않았다.

2. 이론적 배경

1) 이질성 이론(Heterogeneity Theory)

사회적 기업의 규모나 성장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론이 ‘이질성 이론(Heterogeneity Theory)’ 혹은 ‘시장실패/정부실패 이론(the market/government failure theory)’이다(Salamon, Sokolowski & Anheier, 2000). 고전 경제학(classical economic theory)에 바탕을 둔 이 이론은 공공재 혹은 그와 유사한 성격의 재화를 정부가 공급할 때 수요에 측의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한다(Weisbrod, 1988). 일반적으로 시장실패(the market failure)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명분을 제공한다.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시장(the market)으로부터 필요한 재화를 적절히 공급받지 못하는 수요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Matsunaga, Yamauchi & Okuyama, 2010; Salamon, Sokolowski & Anheier, 2000).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상황은 시장실패와 대비되는 개념인 정부실패(the government failure)를 일으키게 된다.

주민의 인종이나 경제력, 종교, 정부에 대한 신뢰 등 그 성격이 균질적(homogeneous)이라면, 일반적으로 대중이 원하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지만, 주민이 매우 이질적(heterogeneous)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즉, 매우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한다면, 구성원의 수요를 전반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Pevcin, 2011). 다시 말해, 다양성이 보장된 민주국가 시스템에서는 공공지출이나 공공재의 공급은 중간투표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저소득층의 수요를 충족되기 매우 어렵다(Nissan, Castano & Carrasco, 2012). 주민의 다양성(이질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형태의 정부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공공재 공급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 주민들은 비영리 기구나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부족한 수요를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다(Nissan, Castano & Carrasco, 2012; Matsunaga, Yamauchi & Okuyama, 2010; Caruana & Ewing 2002). 요약하면, 이질성 이론은 기본적으로 국가 혹은 지역 공동체의 다양성이 크면 공공재가 효과적으로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사회적 기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Salamon & Anheier, 1988; Salamon, Sokolowski & Anheier, 2000; Pevcin, 2011).

2) 상호 의존 이론(Interdependence Theory)

이질성 이론을 주요 논거로 삼은 선행 연구는 정부의 공공재 공급과 사회적 기업 영역을 갈등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일견 매우 타당한 이론적 근거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갈등구조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 의한 통제가 강한 국가나 공동체에서는 오히려 협력 관계의 형성이 가능하

2) 시장실패란 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자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Wolf (1988)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자연독점,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꼽았다.

다. 상호 의존 이론은 정부와 사회적 기업의 영역을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Sokolowski, 2013; Nissan, Castano & Carrasco, 2012; Salamon & Anheier, 1988; Salamon, Sokolowski & Anheier, 2000).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자발적 시민 조직은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 부문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Salamon, Sokolowski & Anheier, 2000).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하고 지역 사회에 더욱 깊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이 효율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정부는 유사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을 형성하여 집행하기보다 오히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Salamon, Sokolowski & Anheier, 2000). 이런 의사결정이 비용의 측면이나 신뢰 형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시민 사회의 이런 관계를 Nissan, Castano & Carrasco(2012)는 동반 관계(partnership)로 규정한다. 사회적 기업과 같은 시민 사회 역시 이런 동반 관계를 반긴다. 그 이유는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 기업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Salamon, Sokolowski & Anheier, 2000).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기업의 역량 문제이다. 역량은 기업의 생산력뿐만 아니라 재정 능력을 포함한다. 물론 재정 능력과 생산력은 연관성이 있다. 재정이 열악한 사회적 기업은 사회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비용 감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사회적 기업의 영역이 내재하고 있는 온정주의다.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박애주의 관점은 정작 필요한 사회 문제 해결에 역량을 쏟기보다 개인적 친밀도 혹은 감성에 치우쳐 필요성의 우선순위가 낮은 곳에 집중하도록 한다. Salamon, Sokolowski & Anheier(2000)는 이런 상황은 시장실패/정부실패에 빚대 '자원봉사 실패(voluntary failure)'로 표현한다. 자발적으로 역량을 쏟았지만, 필요하지 않은 곳에 역량을 쏟은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활동가 역시 인지하는 상황이므로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부에 관리 하에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는 상호 의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을 지표로 활용한다(예: Sokolowski, 2013; Nissan, Castano & Carrasco, 2012; Salamon, Sokolowski & Anheier, 2000; Salamon & Anheier, 1988).

3) 공급 측면 이론(Supply-side Theory)

공급 측면 이론은 Salamon & Anheier(1988), Nissan, Castano & Carrasco(2012) 등의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 영역의 확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제시되었다. 공급 측면 이론은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는 원인을 공급자, 다시 말해 창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사회적 기업가로 불린다. 사회적 기업가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창업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개인을 의미한다(Pärensön, 2011). Pärensön(2011)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특징을 첫째, 경제적 이윤 추구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신, 둘째, 혁신적인 이윤 창출 모형을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신, 셋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공동체 구성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도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정신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분석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수준이 높거나 사회적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정신을 소유한 집단이 많이 거주한다면 사회적 기업 영역의 확장은 필연적이다(Salamon, Sokolowski & Anheier, 2000). 하지만 Salamon & Anheier(1988)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 기업이 정신의 수준을 국가 혹은 지역별로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정신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을 먼저 고려해보아야 한다(Salamon & Anheier, 1988). 공급 측면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은 사회적 기업가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며, 사회적 기업의 공급을 촉진하는 특정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Salamon & Anheier, 1988; Nissan, Castano & Carrasco, 2012). 특정한 상황에 대해 Salamon & Anheier는 종교시설의 집적 정도를 언급했다.

4) 복지 국가 이론(Welfare State Theory)

전술한 바대로 사회적 기업, 비영리 기구 등 자발적 민간단체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지지를 받는 이론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질성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질성 이론은 기본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정부의 역할과 시민 사회 영역을 갈등구조로 파악하고 있다(Salamon & Anheier, 1988). 한편, 복지 국가 이론 역시 이질성 이론과 더불어 시민 사회 영역의 확장 혹은 축소에 관한 매우 유력한 가설을 제공하는 이론이다(Nissan, Castano & Carrasco, 2012; Pevcin, 2011; Kerlin, 2010).

Salamon & Anheier에 따르면, 복지 국가 이론은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정부 역할의 잉여(residual)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회적 기업은 가족, 교회, 영주(feudal lord) 등과 같이 취급해야 하며, 이와 같은 조직은 정부의 역할이 부족할 경우에 그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복지 국가 이론에 따르면 산업화의 과정은 가족, 교회, 영주 등의 역할을 정부가 대신하도록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 영역의 확장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복지 역시 자발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복지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Salamon & Anheier, 1988). 따라서 복지 국가 이론의 핵심은 경제의 성장(economic development)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정부 영역이 확장되어 정부의 역할이 사회 복지 영역의 전반에까지 미치게 된다. 이는 곧 사회적 기업의 존재 의미를 약하게 한다. 요약하면, 복지 국가 이론은 경제의 성장과 사회적 기업 영역의 확장 역시 갈등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3. 분석의 틀과 가설 설정

다음의 <그림 3>은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이 시도된 바 없지만, 사회적 기업의 지역 내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가지 이론을 검토하였다.

〈그림 3〉 연구의 분석 모형



전술한 바대로 이질성 이론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이 증가하면 사회적 기업의 영역이 증가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다양성이 증가하면 정부의 공공재 공급에 만족하지 못하는 계층이 생겨날 확률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지역의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지역 내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젊은이 인구이다(예: Florida, 2005; Choi, 2012). 젊은이 인구는 노령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 경제 수준, 문화 수준 등이 다양하므로 젊은이 인구가 많으면 지역의 활동성이 증가하여 문화의 다양성, 교육 공급의 다양성 등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Florida, 2005). 이에 반해 노령인구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경제생활이 비교적 단순할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이념적 지형 역시 획일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주장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젊은이 인구가 지역 내에 많아지면 공공재 수요의 다양성도 증가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기업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젊은이 인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1,000명당 사회적 기업의 수는 많을 것이다.

본 연구가 두 번째로 제시하는 이론인 상호 의존 이론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사회적 기업 영역을 동반자적 관계로 파악한다(Nissan, Castano & Carrasco, 2012; Kerlin, 2010; Salamon, Sokolowski & Anheier, 2000). 정부와 사회적 기업 모두 효과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안영규·박의룡, 2011; 선남이·박능후, 2011). 이럴 경우, 직접적인 공공재의 공급보다 사회적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사회적 기업 역시 이런 지원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의 역량을 키우게 된다. 특히 전술한 바대로 사회복지 지출을 파트너십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이다(Nissan, Castano & Carrasco, 2012; Caruana & Ewing 2002; Weisbrod 1988).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할 때 사회적 기업의 영역이 확대되면 협력관계에 놓

여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둘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H2: 1인당 사회복지 지출액이 많을수록 1,000명당 사회적 기업의 수는 많을 것이다.

한편, 공급 측면 이론은 사회적 기업가가 등장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Salamon & Anheier, 1988). 다시 말해, 사회적 기업이 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면 창업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한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Salamon & Anheier(1988)은 종교 시설의 집약 정도를 지표로 활용하였다. 서구 사회에서 종교시설은 지역의 문화 창조와 교육 사업, 사회 복지 사업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가는 종교시설에 다수가 고용되어 있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가가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Salamon & Anheier, 1988). 이런 논리적 근거를 배경으로 Salamon & Anheier는 종교시설의 입지를 공급 측면 이론을 대표하는 지표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나라의 종교시설의 여건 상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대표적 종교시설인 교회와 사찰 등을 지역 문화, 교육, 복지 등의 중심지로 고려하는 것은 영세한 시설이 다수라는 점에서 무리가 있고 둘째, 종교단체의 봉사활동이 창조적 기업 활동과 관련되기보다 구제활동에 치우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 측면 이론이 사회적 기업의 확산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종교시설의 입지를 고려하기보다 사회적 기업가가 많이 배출될 가능성이 큰 비영리 민간단체의 집적 정도를 지표로 선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셋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H3= 1인당 비영리 민간단체의 수가 많을수록 1,000명당 사회적 기업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복지 국가 이론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전통적인 복지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국가가 자산과 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결국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결국 경제가 확장되면, 정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의 영역이 확대되고 이는 결국 사회적 기업과 같은 자발적 시민단체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 지역의 경제력 확대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가계 소득(household income)에 관한 지표인데 우리나라 시군구 수준에서 측정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역시 경제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지표지만, 서울시의 구 단위에서 측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자치구가 포함된 본 연구에서는 GRDP의 활용이 불가하다. 종사자 수에 관한 지표와 사업체 수에 관한 지표 역시 활용할 수 있지만, 모든 산업의 총량을 측정한 지표이기 때문에 경제의 확장 자체를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역의 경제가 호전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중 하나가 인구의 유입이다. 경제의 활성화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구를 유입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넷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H4=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1,000명당 사회적 기업의 수는 감소할 것이다.

Ⅲ. 분석의 방법

1. 공간적 상관성의 확인과 회귀모형의 설정

1) 공간적 상관성의 확인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의 지역 내 확산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공간적 분포를 고려한다.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는 이론적 근거는 Anselin(2001)의 지적처럼 차후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함에 있어 종속변수가 공간적 상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이를 회귀모형에서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 때문에 발생하는 내적타당성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공간적 상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ArcGIS와 같은 지도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각화하는 것이다.

시각화 방법과 더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은 *Global Moran's I*(이하 전역적 모란지수)와 *Local Moran's I*(이하 국지적 모란지수) 값을 확인하는 것이다.³⁾ 전역적 모란지수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양의 공간적 상관성이 커지며 -1에 가까울수록 음의 공간적 상관성이 커진다.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통계 모형에서 공간적 상관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Boots & Tiefelsdorf, 2000). 한편, 국지적 모란지수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지역의 군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지표를 활용하면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를 다음의 표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참조). 'High-High'는 사회적 경제의 확산 정도가 큰 지역 간의 군집이며, 'Low-Low'는 확산 정도가 작은 지역 간의 군집이다. 'Low-High'는 인접 지역의 확산 정도가 크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은 확산 정도가 작을 경우이며, 'High-Low'는 반대로 인접 지역의 확산 정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은 확산 정도가 클 경우이다(Boots & Tiefelsdorf, 2000; Lee, 2001).

〈표 1〉 국지적 모란지수의 결과 도출되는 군집의 유형

군집 유형	해당 지역	인접 지역	공간적 상관성 방향
High-High	높음	높음	양
Low-Low	낮음	낮음	양
Low-High	낮음	높음	음
High-Low	높음	낮음	음

3) 전역적 모란지수와 국지적 모란지수의 도출 수식은 Boots & Tiefelsdorf(2000), Lee(2001) 등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2) 공간적 회귀모형의 설정

전술한 바대로, 공간회귀모형(spatial regression models)은 종속변수가 공간적 상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이를 회귀모형에서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 때문에 발생하는 내적타당성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한 계량모형이다(Anselin, 2001; LeSage & Pace, 2009). 전형적인 선형 회귀모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 상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특정한 지역의 종속변수 y 의 값은 인접 지역의 종속변수의 값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오차항의 구조가 인접 지역의 오차항의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LeSage & Pace, 2009).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와 선정된 변수에 따라 두 가지의 공간적 상관 문제 중 하나만 발생할 수도, 두 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⁴⁾ 먼저 공간적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본 연구의 선형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y = \alpha + X\beta + \epsilon \tag{1}$$

회귀모형 (1)에서 X 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주요 독립변수의 벡터이며, β 는 X 의 회귀계수로서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감소)할 때, 종속변수는 얼마나 증가(감소)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회귀모형 (1)의 y , α , ϵ 는 각각 종속변수, 절편 그리고 오차항을 나타내고 있다. 회귀모형 (1)은 공간적 상관성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공간적 변수를 모형에 포함해 이를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Anselin, 2001). 종속변수의 공간적 상관성을 통제하기 위한 모형은 Spatial Autoregressive Model(이하 SAR 모형)이다. SAR 모형은 회귀모형 (1)에 종속변수와 공간가중행렬을 곱한 변수를 삽입하여 종속변수의 공간적 상관성을 통제한다(Anselin, 2001; LeSage & Pace, 2009). 본 연구의 SAR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y = \rho Wy + X\beta + \epsilon \tag{2}$$

모형 (2)에서 y 는 연구의 종속변수이며, X 는 주요 독립변수의 벡터를 의미한다. 또한 ϵ 는 오차항이며, β 는 X 의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종속변수의 공간적 상관성을 통제하기 위해 모형 (2)에는 ρWy 가 추가되었다. 여기에서 W 는 공간가중행렬(spatial weights matrix)을 의미하는데 이는 분석의 단위의 공간적 위치를 규정한 것이다. W 는 인접성 여부를 바탕으로 구성하는 Queen 가중행렬과 Rook 가중행렬 등⁵⁾이 있으며, 중심지 간의 거리를 기반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4) Halleck Vega & Elhorst(2012)는 두 가지 공간적 상관에 따라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회귀모형을 그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공간회귀모형은 Halleck Vega & Elhorst 연구 등을 참조할 수 있다.

5) Rook 가중행렬은 경계가 선으로 이어지는 곳을 인접 지역으로 인정하여 구성하는 행렬이며, Queen 가중행렬은 경계가 극히 일부분만 점처럼 만나는 곳도 인접 지역으로 인정하여 구성하는 행렬이다(Viton, 2010).

는 인접성을 통제하는 가장 일반적인 Queen 가중행렬을 활용하여 모형 (2)를 추정하기로 한다. 모형 (2)에서 ρ 는 W_y 의 공간회귀계수가 된다. 추정의 결과, W_y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종속변수의 공간적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모형 (2)의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된다(Anselin, 2001; LeSage & Pace, 2009).

오차항이 인접한 지역의 오차항에 영향을 받아 모형 (1)에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을 수정하기 위한 모형은 Spatial Error Model(이하 SEM 모형)이다(Anselin, 2001; LeSage & Pace, 2009). SEM 모형은 인접한 지역 간 오차항이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를 전형적인 회귀모형에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SEM 모형이 도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과 같이 전형적인 회귀모형을 (3)을 다시 정의하기로 한다.

$$y = \alpha + X\beta + u \quad (3)$$

모형 (3)에서 u 는 공간적 상관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오차항인데 이를 통제하기 위해 오차항에 공간가중행렬을 적용한 수식 (4)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u = \lambda Wu + v \quad (4)$$

따라서 모형 (3)에 (4)를 삽입하면, 본 연구의 최종적인 SEM 모형이 도출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모형 (5)로 정의할 수 있다. 공간회귀모형 (5)에서 λWu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오차항의 공간적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모형 (5)의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된다(Anselin, 2001; LeSage & Pace, 2009).⁶⁾

$$y = X\beta + \lambda Wu + v \quad (5)$$

SEM 모형과 SAR 모형을 하나의 모형에서 모두 고려한 공간회귀모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General Spatial Model 혹은 Spatial Autocorrelation Model(이하 SAC 모형)이라 한다(Anselin, 2001; LeSage & Pace, 2009). 본 연구의 SAC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y = \rho W_y + X\beta + \lambda Wu + v \quad (6)$$

모형 (6)은 종속변수의 공간적 상관성을 통제하기 위해 공간가중행렬을 종속변수에 곱한 변수인 W_y 를 모형에 삽입하였으며 동시에, 오차항의 공간적 상관성을 통제하기 위해 오차항에 공간가중행렬을 곱한 Wu 를 모형에 삽입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SAR, SEM 모형과 두 모형을 하나의 방정식에 모두 고려한 SAC 모형

6) 본 연구에서 SEM 모형의 λWu 는 가설 입증과는 상관없는 변수로 통제변수로 간주된다.

에는 동시적 내생성(Simultaneous Endogeneity)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종속변수 간의 공간적 상관성이나 오차항 구조 간의 공간적 상관성뿐만 아니라, 독립변수와 오차항 간의 공간적 상관성 또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공간적 상관성이 발생할 수 있다(Panzera & Postiglione, 2014; Kelejian & Prucha, 1997). 이와 같은 동시적 내생성으로 인한 내적타당성의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본 연구는 모든 모형에서 도구변수⁷⁾를 활용한 추정방법인 Spatial Two Steps Least Square(이하 S2SLS)를 활용하여 결과를 추정한다(Panzera & Postiglione, 2014; Kelejian & Prucha, 1997).

2. 분석의 단위와 변수의 추출

1) 분석의 단위

본 연구에서 분석의 단위는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이다. 75개의 시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81개의 군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리고 69개의 군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총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본 연구의 분석단위이다. 따라서 제주시나 서귀포시와 같은 행정시와 분당구나 기흥구 등과 같은 행정구 그리고 세종시와 울산시 등의 광역시는 분석의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울릉군의 경우 대부분의 지표가 매우 낮아 이상치(outlier)에 속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으므로 공간적 상관성을 모형에서 통제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을 제외하였다.

2) 변수의 추출

다음의 <표 2>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출처를 보여주고 있다. SOENT1000은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로서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 1,000인당 사회적 기업의 수를 의미하고 있다. 주요 독립변수는 크게 네 개로 구분되는데, 먼저 YOUNG은 이질성 이론에 근거한 다양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인구 중 20~34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LNWELFARE는 상호의존 이론에 근거한 사회복지 지출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출 결산 중 사회복지 세출 결산 금액의 자연로그를 의미한다. 또한, NGO1000은 공급 측면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적 기업가가 출현할 수 있는 상황의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000인당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를 의미하며 마지막 주요 독립변수인 POPGROWTH는 복지 국가 이론을 근거로 경제 성장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을 의미한다.

이상의 주요 독립변수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가 다름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시, 구 더미변수를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광역 위

7) 종속변수가 y , 독립변수가 X 라고 가장하면, WX 를 도구변수로 모형에 삽입하여 Wy 를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Kelejian & Prucha, 1997).

치 역시 사회적 기업의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영향을 주는 기초적인 통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 인구밀도 역시 통제변수로서 모형에 포함된다.

〈표 2〉 변수의 설명과 출처

유형	표기	설명	출처	
종속변수	SOENT1000	주민 1,000명당 인증사회적기업의 수(2016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YOUNG	전체 주민 중 젊은이 인구(20~34세) 비율(2015년)	각 시도 기본통계	
독립변수	LNWELFARE	주민 1인당 사회복지지출(2013년)의 자연로그	각 시도 기본통계	
	NGO1000	주민 1,000명당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2016년4월)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행정자치부 자체생산)	
	POPGROWTH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2014년)	각 시도 기본통계	
통제변수	SI	기초시 더미변수	해당 없음	
	GUN	기초군 더미변수		
	GWANGWON	강원도 지역 더미변수		
	DAEJUN	대전/충청남북도 더미변수		
	DAEGU	대구/경상북도 더미변수		
	GWANGJU	광주/전라남북도 더미변수		
	BUSAN	부산/울산/경상남도 더미변수		
	FINANCE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2014)		각 시도 기본통계
	FIRMS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		각 시도 기본통계
	LNDENSITY	(인구/면적)의 자연로그		각 시도 기본통계

다음의 〈표 3〉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는 평균적으로 인구 천 명당 약 0.039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혀 존재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가장 많은 지역에는 인구 천 명당 0.216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었다. 20~34세 인구는 평균적으로 18%를 상회하고 있었는데, 가장 비율이 낮은 지역은 약 11%인 반면에 비율이 높은 지역은 30%에 육박하였다. 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의 평균은 약 82만원이었으며 가장 적게 지출하는 지역은 약 28만원, 가장 많이 지출하는 지역은 260만원에 달하였다.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약 0.28개가 있었는데 가장 적은 지역에는 0.07개, 가장 많은 지역에는 약 3개 정도가 위치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가율 평균은 약 0.4%였다. 가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약 2.2% 감소하고 있었으며 가장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10%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SOENT1000(개)	0.039	0.034	0.000	0.216
YOUNG(%)	18.268	3.735	11.177	29.647
WELFARE(원)*	821,048.487	328,636.806	276,244.335	2,596,831.971
NGO1000(개)	0.28	0.29	0.07	3.082
POPGROWTH(%)	0.440	1.587	-2.238	10.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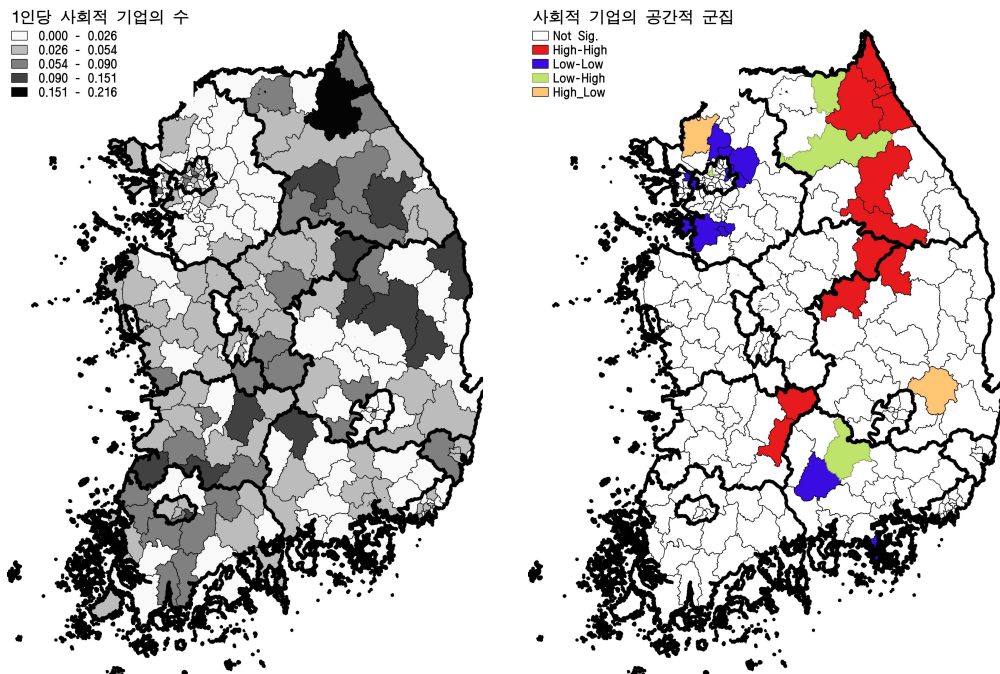
* 회귀모형에서는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활용

IV. 분석의 결과

1. 공간적 상관성 추정결과

다음의 <그림 4>는 1인당 사회적 기업의 수를 공간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하여 지도에 표시한 것(좌측)과 국지적 모란지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시군구를 사회적 기업(주민 1인당)의 공간적 군집으로 구분한 것(우측)이다. 전역적 모란지수의 값을 도출한 결과 0.183의 값이 도출되었으며 이 값은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시군구 수준 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의 분포는 양의 공간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지수의 결과 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상관성이 크기는 매우 큰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지적 모란지수의 추정 결과, 강원도 북동부와 남부 일부 지역, 그리고 이와 인접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은 매우 높은 상관성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 기업의 공간적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전라북도의 일부 지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경기 남서부와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북부지역은 반대로 사회적 기업의 확산 정도가 매우 낮은 군집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1인당 사회적 기업의 분포와 공간적 군집



전역적 모란지수=0.183, $z=4.383^{***}$

***는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회귀모형의 추정결과

다음의 <표 4>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모형의 R^2 통계량을 살펴보면, 공간적 회귀모형이 전형적인 선형 OLS 모형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공간적 회귀모형의 공간 지표가 SEM 모형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간적 상관성으로 인해 OLS 모형의 내적타당성의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우리나라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의 확산 정도는 인접한 지역의 사회적 기업의 확산 정도에 큰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대체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53% 정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이질성 이론을 근거로 선정한 YOUNG(전체 인구 대비 20~34세 인구의 비율)은 SAR 모형의 추정결과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계수와 검정 통계량이 양의 값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젊은이 인구 비율의 증가, 다시 말해 지역 내 다양성이 증가하면 1000명당 사회적 기업의 수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비록 다른 공간회귀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유의수준 0.1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그 영향력을 전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호 의존 이론을 근거로 선정한 LNWELFARE(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의 자연로그)는 OLS를 포함한 모든 공간회귀모형에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계수와 검정 통계량이 양의 값으로 도출되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하면 사회적 기업의 영역 역시 확대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공급 측면 이론에 근거하여 선정한 NGO1000(인구 천명당 비영리민간단체의 수) 역시 모든 공간회귀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계수와 검정 통계량이 양의 값으로 도출되었다. 다시 말해, 지역 내 NGO 단체의 수가 많으면 사회적 기업의 영역 역시 확대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마지막 복지 국가 이론을 근거로 선정한 POPGROWTH(전년 대비 인구증가율)는 SAR 모형에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다른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모형에서는 유의수준 0.15에서 유의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통제변수의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이 시, 군, 구 여부에 따라 사회적 기업 영역의 규모는 큰 차이가 없었다. 시, 군의 추정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광역 지역의 변수에서는 강원도권역, 대전충청권역, 광주전라권역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에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사회적 기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있었다. 특히 강원도권역의 확산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기타 사업체 수와 재정자주도, 인구밀도 등은 사회적 기업의 지역 내 확산 정도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었다.

〈표 4〉 회귀모형 추정의 결과

Variable	OLS		SAR		SEM		SAC	
	계수	t 값	계수	z 값	계수	z 값	계수	z 값
YOUNG	0.010	1.087	0.033	1.687*	0.009	1.480	0.014	1.447
LNWELFARE	0.026	2.128**	0.026	2.183**	0.026	2.213**	0.024	2.207**
NGO1000	0.031	3.091***	0.027	2.782***	0.031	3.222***	0.027	2.940***
POPGROWTH	0.000	-1.210	0.000	-1.690*	0.000	-1.194	0.000	-1.416
SI	-0.016	-1.481	-0.009	-0.856	-0.016	-1.563	-0.010	-1.008
GUN	-0.013	-0.924	-0.007	-0.492	-0.013	-0.973	-0.006	-0.523
GWANGWON	0.044	4.266***	0.032	2.758***	0.044	4.492***	0.029	3.002***
DAEJUN	0.015	1.798*	0.014	1.735*	0.014	1.866*	0.010	1.669*
DAEGU	0.013	1.529	0.009	1.069	0.013	1.607*	0.007	1.068
GWANGJU	0.016	1.840*	0.012	1.346	0.016	1.925*	0.009	1.296
BUSAN	0.000	-0.052	0.000	0.063	-0.001	-0.079	-0.001	-0.285
FINANCE	0.000	1.187	0.000	1.156	0.000	1.232	0.000	1.114
FIRMS	0.000	1.290	0.000	1.455	0.000	1.318	0.000	1.184
LNDENSITY	0.002	0.709	0.003	0.997	0.002	0.729	0.003	1.000
CONSTANT	-0.370	-2.022**	-0.397	-2.204**	-0.371	-2.097**	-0.360	-2.198**
W_SOENT1000			0.362	2.017**			0.456	2.821***
Lambda					0.038	0.415	0.564	2.773***
R^2	0.489		0.534		0.532		0.537	
다중공선성지수	43.523							
F 값	9.447***							

- *, **, ***는 각각 p 값 0.1, 0.05,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 OLS 모형을 제외한 기타 공간회귀모형은 Pseudo R^2 임
- 다중공선성지수가 80을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모형의 내적타당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 시와 군은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구(reference category)와 비교되며, 광역 구분 더미 변수는 수도권(reference category)과 비교한 결과임

V. 요약 및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변수의 선정을 위해 이질성 이론, 상호 의존 이론, 공급 측면 이론, 복지 국가 이론 등을 검토하였고 각 이론을 근거로 전체 인구 대비 젊은이 인구 비율(20~34세),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 인구 1,000명당 비영리민간단체의 수,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 등의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이상의 변수가 인구 1,000명당 사회적 기업의 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상관성을 통제하여 모형의 내적타당성을 높이는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공간회귀모형의 추정결과 가설의 채택 여부는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이질성 이론을 근거로 설정한 첫 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일부 모형에서 채택

되었으며 채택되지 않은 모형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상호 의존 이론을 근거로 설정한 두 번째 가설은 모든 모형에서 채택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지역 내 사회적 기업 확산의 영향요인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공급 측면 이론을 근거로 설정한 세 번째 가설 역시 모든 모형에서 채택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규모는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의 확산에 매우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 국가 이론을 근거로 설정한 네 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첫 번째 가설과 마찬가지로 일부 모형에서 채택되었으며 채택되지 않은 모형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5〉 추정 결과의 요약

이론	변수	예상 관계	채택 여부
이질성 이론	전체 인구 대비 젊은이 인구 비율(20~34세)	양(+)	부분
상호 의존 이론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	양(+)	채택
공급 측면 이론	인구 1,000명당 비영리민간단체의 수	양(+)	채택
복지 국가 이론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	음(-)	부분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역 주민 구성의 이질성이 높은 지역은 사회적 기업을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공공재의 공급을 상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존재는 정부가 공공재의 적절한 공급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Salamon & Anheier, 1988; Salamon, Sokolowski & Anheier, 2000). 이처럼 정부실패가 발생하면, 사회적 기업의 영역과 규모가 확장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상 공공재의 공급을 확장하기 어렵거나 모든 계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확대가 불가능하다면 사회적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를 만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규모와 수를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를 채용하기 위한 직접 지원이나 사회 서비스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간접 지원은 많은 지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직접 지원이 재정 여건 상 부담이라면 사회적 기업가의 교육, 정보 제공, 사회적 기업가의 교류 통로 마련 등의 간접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기업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여러 현안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많아지면 이에 반응하여 사회적 기업의 영역도 확장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지출이 사회적 기업에 직접 투입될 수도 있지만, 지역 내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에 인하여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장되면 사회적 기업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과 정부부문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은 장점과 함께 단점이 있다. Salamon, Sokolowski & Anheier(2000)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에 의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영역이 굳어지거나 오히려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업가와 지역 내 활동가의

지속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협력 체계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영리민간단체의 입지는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이 정신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이들 단체의 활동이 사회적 기업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이 정신이 지역 내에 공유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업 경영 모델에 대한 이해와 창업 아이디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업 운영에 대한 교육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된다. 마지막 넷째, Mawson(2010)의 지적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감소할수록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역은 사회적 기업을 도구로 활용해 지역의 재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경우, 다양한 측면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는지 사회적 기업의 여러 유형 중 지역 경제에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기업의 유형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선택적인 지원 제도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

- 김경희(2013).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3(2): 126-150.
- 김영철(2011). “사회적 경제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 『지역사회연구』, 19(2): 25-49.
- 류만희(2012). “사회적 기업의 지역개발 기능과 시장형성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36): 75-104.
- 안영규·박의룡(2011). “한국형 사회적 기업의 주요 성공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국제경영리뷰』, 15(3): 25-43. 『직업교육연구』, 31(4): 153-178.
- 오현석·류혜현·이상훈·최윤미(2012). “사회적기업가의 지향 가치와 가치 형성 동인에 관한 연구”, 이형재·류선호(2012).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동일시의 효과”, 『고객만족경영연구』, 14(1): 197-216.
- 선남이·박능후(2011). “사회적 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2): 141-164.
- 조영복·류정란(2014).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그 접근법과 발전방향의 모색 - SROI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 『인적자원관리연구』, 21(3): 475-494.
- 진희선(2013). “한국 사회적기업에서의 사회적 가치와 그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 『윤리연구』, 91: 127-167.
- Anselin, L.(2001). *Spatial Econometrics. A Companion to Theoretical Econometrics*, Edited by Badi H. Baltagi, Blackwell Publishing Lt.
- Boots, Barry & Tiefelsdorf, M.(2000). “Global and local spatial autocorrelation in bounded regular tessellations”, *Journal of Geographical Systems*, 2(4): 319-348.
- Caruana, A. & Ewing, M. T.(2002). “Effects of some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centralization

- on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performance of public sector entities”, *Service Industries Journal*, 22: 43-58.
- Choi, E.(2012). “Urban amenities as determinants of selecting a logo type in Korea: the multinomial logit approach with the bootstrap sample”, *Quality & Quantity*, 46(1): 391-404.
- Diochon, M. & Anderson, A. R.(2011). “Ambivalence and ambiguity in social enterprise: narratives about values in reconciling purpose and practice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7(1): 93-109.
- Florida, R.(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New York: Routledge.
- Halleck, V. S. & Elhorst J. P.(2012). “On spatial econometric models, spillover effects, and W”, University of Groningen, Working paper.
- Kelejian, H. H & Prucha, I. R.(1998), A Generalized Spatial Two-Stage Least Squares Procedure for Estimating a Spatial Autoregressive Model with Autoregressive Disturbances, *The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17(1): 99-121.
- Kerlin, J. A.(2010),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Global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Voluntas*, 21:162-179
- Larner, J. & Mason, C.(2014). “Beyond box-ticking: a study of stakeholder involvement in social enterprise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14(2): 181-196.
- Lee, E.(2015). “Social Enterprise, Policy Entrepreneurs, and the Third Sector: The Case of South Korea”, *Voluntas* 26: 1084-1099.
- Lee, S.(2001). “Developing a bivariate spatial association measure: An integration of Pearson's r and Moran's I ” *Journal of Geographical Systems*, 3(4): 369-385.
- LeSage, J. & Pace, R. K.(2009). *Introduction to Spatial Econometrics*, FL: Taylor & Francis Group.
- Low, Chris.(2006). “A framework for the governance of social enterpris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33(5/6): 376-385.
- Massetti, Brenda(2012). “The Duality of Social Enterprise: A Framework for Social Action”, *Review of Business* 33(1): 50-64.
- Matsunaga, Y., Yamauchi, N. & Okuyama, N.(2010). “What Determines the Size of the Nonprofit Sector?: A Cross-Country Analysis of the Government Failure Theory”, *Voluntas*, 21(2): 180-201.
- Mawson, John.(2010). “Social enterprise, strategic networks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West Midlands experi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30(1/2): 66-83.
- McCabe, A. & Hahn, S.(2006). “Promoting Social Enterprise in Korea and the UK: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Alternative Welfare Provision or a Means to Welfare to Work?”, *Social Policy & Society*, 5(3): pp. 387-398.
- Nissan, E., Castaño, M. & Carrasco, I.(2012). “Drivers of non-profit activity: a cross-country analysis”, *Small Business Economics*, 38 (3): 303-320.

- Panzer, Domenica & Postiglione, P.(2014). "Economic growth in Italian NUTS 3 provinces",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53(1): 273-293.
- Pärenson, T.(2100). "The criteria for a solid impact evaluation in social entrepreneurship", *Society and Business Review* 6(1): 39-48.
- Pevcin, Primoz(2011). "Size and Importance of Civil Society Se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 Sciences*, 4(17): 371-379.
- Rodríguez, M. J. & Guzmán, C.(2013). "Innovation in social economy firms", *Management Decision*, 51(5): 986-998.
- Salamon, L. M. & Anheier, H. K.(1998),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Explaining the nonprofit sector cross nationally", *Voluntas*, 9(3): 213-248.
- Salamon, L. M, Sokolowski, S. W., & Anheier, H. K.(2000),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An overview", Working Paper of the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 no. 38, The 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Baltimore.
- Sokolowski, S. W.(2013).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of Nonprofit Institutions on Aggregate Private Philanthropy: Evidence from 40 Countries", *Voluntas* 24(2): 359-381
- Thompson, J. & Doherty, B.(2006). "The diverse world of social enterprise: A collection of social enterprise sto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33(5/6): 361-375.
- Trexler, Jeff.(2008). "Social Entrepreneurship as an Algorithm: Is Social Enterprise Sustainable?", *Emergence : Complexity and Organization*, 10(3): 65-85.
- Viton, P. A.(2010). "Notes on Spatial Econometric Models", *City and Regional Planning* 870(3).
- Weisbrod, B.(1988). *The nonprofit econom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olf, C.(1978). "*A Theory of Non-Market Failure: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Analysis*", CA: The Rand Cooperation.
- Young, D. R. & Lecy, J. D.(2014). "Defining the Universe of Social Enterprise: Competing Metaphors", *Voluntas*, 25(5): 1307-1332.
- Zhao, L.(2013). "Conceptualizing the Social Economy in China", *Modern Asian Studies*, 47 (3): 1083-1123.
- Zhang, S. & Miao, X.(2011). "Comparative study of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ntrepreneur among European countries, United States and China", *Interdisciplinary Studies Journal*, 1(2): 13-18.

최유진(崔維眞):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클리블랜드 주립대학에서 도시 및 행정학 박사(PhD in Urban Studies and Public Affairs) 학위를 받고 한국행정연구원을 거쳐 현재 강남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도시재생, 환경정책, 지역경제 등이다(eugenechoi@kangnam.ac.kr).

Abstract

Analyzing Drivers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Choi, Eugene

The main purpose of social enterprises is to solve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related to residents' wellbeing in local community utilizing the power of market. In 2007, the law on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was enacted in Korea to diffuse such organizations in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financial conditions in each local government have been confronted with a difficulty to cover growing demand for social services. In this point of view, it is really important to reveal drivers of social enterprises in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mainly reveals factors which affect for diffusion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Heterogeneity Theory, Interdependence Theory, Supply-side Theory and Welfare State Theory.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utilizes spatial regression models.

Key Words: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spatial regression models, informal economy, diffusion theory